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

구 형 모[†] 황 순 택 김 지 혜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삼성서울병원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개념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들 간의 성격특질 차이를 알아보려 하였다. 집단분류를 위해 중학생 집단에게 CCQ 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를 실시하였으며, NEO-PI-R을 통해 성격특질을 측정하였다. 자아탄력성 변인과 자아통제 변인의 요인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세 집단이 분류되었다. 분류된 세 집단의 성격특질을 비교해본 결과 집단 1은 자아탄력 수준이 높았으며, 적절한 수준의 자아통제를 유지하고 있어 자아탄력집단으로 명명되었다. 이들의 성격특질은 외향적이고 친화적이고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며,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집단 2는 자아탄력 수준이 낮아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하였으며, 과소통제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소통제집단으로 명명되었다. 이 집단의 성격특질은 외향적이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정하였으며, 성실성이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은 과소통제집단과 마찬가지로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낮아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하였으며, 과잉통제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통제집단으로 명명되었다. 이들의 성격특질은 상당히 내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실성이 부족하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아탄력성, 과잉통제, 과소통제, 성격특질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구 형 모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FAX: 043-276-5380 / E-mail: khmps@hanmail.net

최근에 와서 아동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 분야에서 정신병리와 성격특질(personality traits)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예를 들면, Block, Block, & Keyes, 1988; Block, Gjerde, & Block, 1991; Costa & Widiger, 1994; Furnham & Thompson, 1991; Huey & Weisz, 1997; John, Caspi, Robins,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4; Robins, John, Caspi,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6). 아동들이 어떤 자극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lock과 Block(1980a)은 성격변인의 일종인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의 개념(Ego Resiliency / Ego Control Model)을 제안하였으며, 이 개념을 기준으로 자아탄력집단, 과잉통제집단, 과소통제집단 등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Asendorpf & van Aken, 1999; Hart, Hofmann, Edelstein, & Keller, 1997; Huey & Weisz, 1997; Robins et al., 1996; van Lieshout, Haselager, Riksen-Walraven, & van Aken, 1995)이 Block의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여 집단을 분류하였고, 각 집단의 행동적, 임상적 특징을 탐색하는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Block에 따르면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은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과 가능성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비해,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여 적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Block & Block, 1980a).

자아통제(Ego Control)는 인지적, 행동적 충동표현과 정서적인 긴장에 대한 각 개인의 역치(threshold)를 통해 개념화할 수 있다. 즉, 자아통제는 정서, 동기, 그리고 행동으로 자신의 충동을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을 경향성을 말한다. 자아통제가 부족한 경우(과소통제, Ego Undercontrolled)에는 자신의 욕구를 즉각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욕구충족의 지연을 참기 어렵고,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의사결정과 행동

적 특징을 보인다. 이에 비해 과도한 자아통제(과잉통제, Ego Overcontrolled)는 자신의 욕구와 정서, 행동에서 억제가 심한 것이 특징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으려 한다(Block & Block, 1980a). Block과 Block(1980a)은 이러한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두 개념을 기준으로 자아가 탄력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자아통제를 보이는 집단을 자아탄력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낮고 과도한 자아통제를 보이는 집단을 과잉통제집단으로,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낮고 자아통제가 부족한 경우를 과소통제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에 관한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을 성격특질, 특히 5 요인 성격이론(Five Factor Model; Digman, 1990; Goldberg, 1990; McCrae & Costa, 1985)과 관련지어 자아탄력집단과 과잉통제집단, 과소통제집단에서 보이는 성격특질 구성상의 차이를 설명하였으며(Asendorpf & van Aken, 1999; Robins et al., 1996), 임상장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동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예측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Asendorpf & van Aken, 1999; Hart et al., 1997; Huey & Weisz, 1997; Robins et al., 1996).

FFM(Five Factor Model; Digman, 1990; Goldberg, 1990; McCrae & Costa, 1985)은 성격구조에 관한 모델로, 개인의 성격특질을 알아보는데 빈번하게 사용된다(John, 1990; McCrae & John, 1992). FFM에서는 정서, 대인관계, 경험, 태도, 동기 등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개인차들을 외향성(Extraversion; E), 친화성(Agreeableness; A), 성실성(Conscientiousness; C), 신경증(Neuroticism; N),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O) 등 다섯 개 특질 차원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외향성은 활기나 열정이라고도 하며,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말을 많이 하고 자기주장을 잘하는 것과 관련된 차원이다. 친화성은 이타성이라고도 하며, 외향성과 함께 대인관계 양상과 관련된 차원이다. 성실성은 양심, 도덕성, 통제, 억제라고도 하며,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관계 있는 자기 통제력이다. 신경증은 적응 또는 정서적 안정성을 부적응 또는 신경증과 대비시키는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은 창조성이라고도 하며, 개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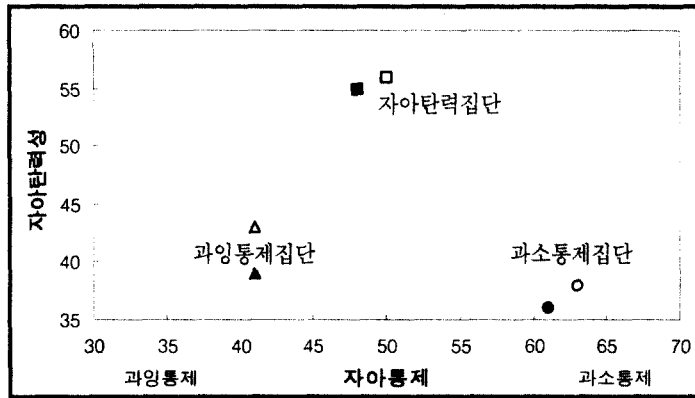


그림 1.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를 이용한 집단분류
(흰색: 백인, 검정색: 흑인)

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외적 세계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윤리, 사회, 정치 사상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Costa & Widiger, 1994; McCrae, 1991).

Robins 등(1996)은 비행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12-13세 남아들(흑인과 백인)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와 성격특질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CCQ(California Child Q-Set; Block & Block, 1980b) 문항을 이용하여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세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림 1). 그리고 같은 도구인 CCQ를 이용하여 이들의 다섯 성격특질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그림 2).

그림 1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집단은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았으며, 충동이나 욕구 등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즉,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과잉통제집단은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고 충동이나 욕구를 지나치게 통제하여 잘 표현하지 않았으며, 과소통제집단은 과잉통제집단과 마찬가지로 자아탄력성 수준은 낮았지만 충동이나 욕구를 잘 통제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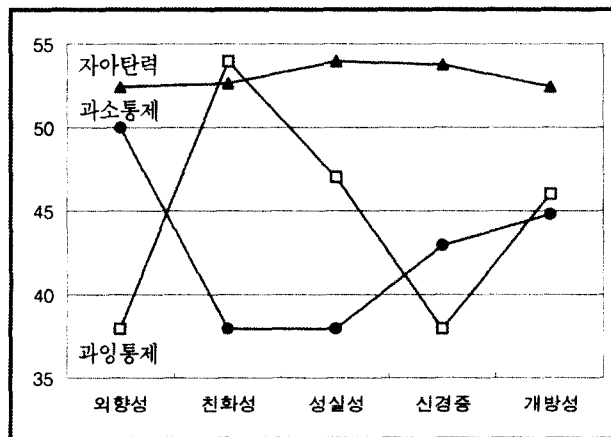


그림 2. 세 집단에서의 성격특질

못해서 너무 많이 표현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2에서 자아탄력집단은 다른 집단들보다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과잉통제집단보다는 더 외향적이고 과소통제집단보다는 더 친화적이었으며, 모든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과잉통제집단은 상당히 내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친화성은 매우 높았다. 과소통제집단은 친화성과 성실성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의심되었으며, 정서적인 안정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CCQ 문항평정과 함께 보고된 아동의 행동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집단별로 집계해 본 결과 자아탄력집단은 병리적인 문제가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행동의 발생율이 적었고, 지적이며, 학교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과잉통제집단은 불안, 우울 등의 내현화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소통제집단은 일반적인 학업적, 행동적, 정서적 문제와 함께 비행 발생율이 높고, 외현화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소통제집단은 내현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Robins et al., 1996).

Robins 등(1996)의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의 수준을 기준으로 3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 집단은 성격특질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의 수준과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Asendorpf와 van Aken(1999), Hart 등(1997)의 연구에서도 Robins 등(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의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의 성격특질을 알아보고 하였다. Asendorpf와 van Aken(1999), Hart 등(1997), Robins 등(1996)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와 성격특질 간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를 측정하는 도구를 구성하는데 CCQ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성격특질을 측정하는 도구를 구성하는 데도 CCQ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는 경우 문항구성 과정에서 측정도구들 간에 문항의 상당한 공유가 불가피해진

다. 타당도가 완벽하지 않은 척도들 간에 공유하는 문항이 증가하면 척도점수들 간의 관찰되는 상관성이 변인들 간의 실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항공유 현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해석상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문항공유 현상을 피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와 성격특질을 별개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충북 청주시 소재 3개 중학교 재학생 29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반응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한 페이지 이상의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일관되게 한 문항에만 응답하는 경우, 보호자용 질문지와 학생용 질문지를 한 사람이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은 불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반응이 신뢰롭지 못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7명(남학생 98명, 여학생 11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들의 연령은 13세 56명(25.8%), 14세 60명(27.6%), 15세 101명(46.6%)이었다.

연구도구

CCQ 자아탄력척도와 CCQ 자아통제척도 이 도구는 아동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California Child Q-Set(CCQ; Block & Block, 1980b)의 문항을 이용하여 구인타당화 방식에 따라 제작된 것이다(구형모와 황순택, 2001). CCQ는 성인용으로 개발된 California Adult Q-Set(Block, 1978)의 문항내용을 연령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 인지, 행동적 특징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CCQ 자아탄력척도는 33문항의 자아탄력 문항과 자아취약 문항들로 구성되며, CCQ 자아통제척도는 30문

항의 과소통제 문항과 과잉통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6 문항은 두 척도에 중복되어 있어 총 문항 수는 57개이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부터 “전적으로 그렇다”(9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NEO-PI-R. NEO-PI-R은 다섯 요인 성격이론에서 상정하는 다섯 가지 성격요인(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Costa & McCrae, 1992; McCrae & Costa, 1985). 이 척도는 외향성(Extraversion; E), 친화성(Agreeableness; A), 성실성(Conscientiousness; C), 신경증(Neuroticism; N),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O) 등 다섯 개 요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총 240개의 문항과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3개의 타당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창규와 이경임(1996)에 의해 번안되었으며, 안창규와 채준호(1997)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이 검사는 원래 16세 이상 연령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중학생 연령을 위한 별도의 규준은 없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원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성격특질 점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의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개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이전의 연구들(Asendorpf & van Aken, 1999; Hart et al., 1997; Robins et al., 1996; York & John, 1992)에서 사용되었던 Q요인분석(Q-factor analysis 또는 inverse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인들을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R요인분석과는 반대로 Q요인분석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는 즉, 참가자들간의 특징패턴을 조직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요인분석방법이다(Block, 1978).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중심으로 하여 참가자들을 요인화하기 위해 Q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Q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우선 217명의 CCQ 57 문항에 대한 자료행렬표를 변환하였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적용하였으며, varimax 회전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몇 개의 요인을 뽑아낼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요인 적용가능성(factor replicability)을 준거로 이용하였다. 요인 적용가능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우선 변환된 자료에서 표본을 중첩되지 않는 무선적인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 한쪽 집단에서 나온 요인들과 다른쪽 집단에서 나온 요인들간의 상관관을 비교함으로써 그 일치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일치도는 2개 요인에서부터 5개 요인까지 계산되었으며, 표 1에 요인점수들간의 일치상관을 제시하였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전체표본에 대해 3개의 요인이나 4개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개 요인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마지막 4번째 요인에 포함되는 참가자 수가 6명(전체 217명 중 3%)으로 매우 적었으며, 또한 그들 중 3명은 두 번째로 높은 요인의 점수가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순수하게 네 번째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참가자 수는 소수인 3명으로 매우 적어서 3개의 요인으로 적용시키게 되었다. 참가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다시 결합한 다음 전체 표본에 대한 Q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요인들은 변량의 44.6%를 설명하였다(요인 1, 34.7% ; 요인 2, 5.2% ; 요인 3, 4.7%).

각 개인들의 회전된 요인점수를 가지고 참가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요인점수는 각 참가자들이

표 1. 요인 적용가능성 : 요인점수들간의 일치상관

추출된 요인수	요인들간의 일치상관				
	1	2	3	4	5
2요인	.88	.40			
3요인	.71	.73	.51		
4요인	.74	.49	.75	.41	
5요인	.68	.55	.63	.56	.27

자신이 속한 유형의 성격특성과 닮아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Asendorpf와 van Aken(1999)과 Robins 등(199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준거를 적용하여 각 참가자들을 분류하였다. 즉 요인점수를 가지고 각 요인에 분류하는 것으로 첫째, 참가자들이 자신이 속한 유형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참가자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유형에서 최소한 .40이상의 요인계수를 지녀야 한다. 또한 한 유형에 속한 참가자가 다른 유형과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둘째, 참가자들의 두 번째로 높은 요인계수는 가장 높은 요인계수보다 최소한 .20은 낮아야 한다. 그리고 셋째, 참가자들은 세 유형 모두에서 .40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이 준거를 사용하여 전체 217명 중 121명(56%)을 분류할 수 있었다. 유형 1에는 86명(71%), 유형 2에는 20명(17%), 유형 3에는 15명(12%)이 포함되었다. 어느 하나의 유형에도 포함되지 못한 96명(44%)의 참가자들을 세 유형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된 집단과 CCQ 57문항을 이용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참조 Robins et al., 1996; York & John,

1994).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어느 특정한 한 유형에서 최소한 .80 이상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83명의 참가자들이 추가적으로 분류되었다.

최종적으로 전체 217명 중 204명(94%)이 세 유형 중의 하나에 포함되었다. 유형 1에는 125명(61.3%), 유형 2에는 52명(25.5%), 유형 3에는 27명(13.2%)이 분류되었으며, 분류되지 못한 참가자는 13명(6%)이었다. 분류된 세 집단 간에는 성이나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성비교에서 $\chi^2(2)=1.623, p>.05$; 연령 비교에서 $\chi^2(4)=3.106, p>.05$). 이후의 분석에서는 세 개의 집단에 포함된 204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류된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CCQ 57개 문항이 각 집단에 대해 가지는 요인점수의 크기를 참조하여 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였다(표 2). 표 2에는 요인점수의 크기 순으로 각 집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항 10개와 반대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 10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문항들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 1에 속하는 참가자들은 안정되어 있고 신뢰롭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며

표 2. 집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리고 반대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CCQ 문항

Z값	집 단 1	Z값	집 단 2	Z값	집 단 3
1.60	48 자신감	2.11	09 스트레스시 미숙행동	2.61	05 감정을 안 드러냄
1.58	34 침착, 안정	1.82	24 스트레스시 몸이 아픔	2.28	18 감정을 억제함
1.51	36 주의집중	1.64	35 참을성이 없음	1.84	01 감정을 말로 표현 안함
1.50	41 신뢰	1.35	39 유머감각	1.50	13 신경질적
1.45	19 주변의 일을 잘 처리함	1.31	13 신경질적	1.38	16 물건의 공유
1.36	37 계획적	1.30	49 고집	1.21	26 변덕스러움
1.35	40 자기 일에 열중함	1.21	30 감정을 모두 드러냄	1.07	02 사려, 배려심
1.30	22 스트레스시 바로 회복됨	1.20	31 신경질	1.02	22 스트레스시 바로 회복됨
1.28	21 호기심, 탐구심	1.15	12 감정을 자제 못함	1.01	49 고집
1.27	04 잘 도와줌	1.10	16 물건의 공유	0.97	41 신뢰
-0.92	53 쉽게 흥분함	-1.11	34 침착, 안정	-1.03	38 죄책감
-0.94	08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림	-1.21	42 자신에 대해 낮은 평가	-1.06	32 타인을 비난함
-0.96	31 신경질	-1.39	29 자기 일을 과장함	-1.09	48 자신감
-1.01	52 투덜댐, 토라짐	-1.39	55 수줍음	-1.25	07 친구가 자주 바쁨
-1.04	24 스트레스시 몸이 아픔	-1.42	05 감정을 안 드러냄	-1.29	36 주의집중
-1.06	12 감정을 자제하지 못함	-1.48	57 괴롭힘 당함	-1.31	10 규칙을 막음함
-1.13	50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	-1.61	25 다치는 것에 무신경함	-1.42	37 계획적
-1.47	09 스트레스시 미숙행동	-1.73	47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함	-1.47	29 자기 일을 과장함
-1.57	17 안절부절못함	-1.77	18 감정을 억제함	-1.59	45 타인을 괴롭힘
-1.67	13 신경질적	-1.84	01 감정을 말로 표현 안함	-1.62	46 공격적

계획적이고 자신의 일에 정력적이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스트레스나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거나 쉽게 회복될 수 있다. 이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지도 않고 불안정하지도 않다. 반면, 집단 2로 분류된 참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참을성이 없고, 자기 감정을 모두 드러내며, 자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집단 3으로 분류된 참가자들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며, 수줍음이 많고, 침착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참조하여 집단 1은 자아탄력집단, 집단 2는 과소통제집단, 집단 3은 과잉통제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에서 보이는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의 정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 참가자들의 CCQ 평정치를 자아탄력 문항과 자아통제 문항으로 각각 분리하여 구형모와 황순택(2001)의 연구에서 산출된 가설적인 자아탄력원형(prototype) 및 가설적인 자아통제원형(prototype)과 상관시켰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각 개인의 상관계수는 크기가 클수록 전문가에 의해 평정된 원형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거나 부적인 상관은 원형과 반대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아탄력성에 대해 어느 한 참가자가 가설적인 원형과

표 3. 각 집단의 자아탄력성 평균과 자아통제 평균

	자아탄력성		자아통제	
	M	(SD)	M	(SD)
자아탄력집단(N=125)	54.21	(8.37)	47.87	(8.70)
과소통제집단 (N=52)	44.97	(9.39)	57.91	(9.26)
과잉통제집단 (N=27)	41.92	(9.46)	45.39	(8.69)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면 이는 그 사람이 자아탄력적인 참가자임을 의미하며, 낮거나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면 자아취약적인 참가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통제에 대해 가설적인 원형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면 이것은 과소통제적인 참가자임을 의미하고, 낮거나 부적인 상관을 보이면 과잉통제적인 참가자임을 의미한다. 개인의 상관계수를 다시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T 점수로 환산하였으며, 각 집단의 자아탄력성 평균값과 자아통제 평균값을 계산하여(표 3) 그림으로 제시하였다(그림 3).

각 집단의 자아탄력성 점수와 자아통제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자아탄력성($F_{(2, 203)}=34.654, p<.001$)과 자아통제($F_{(2, 203)}=28.096, p<.001$)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사후검증(Tukey HSD) 결과 자아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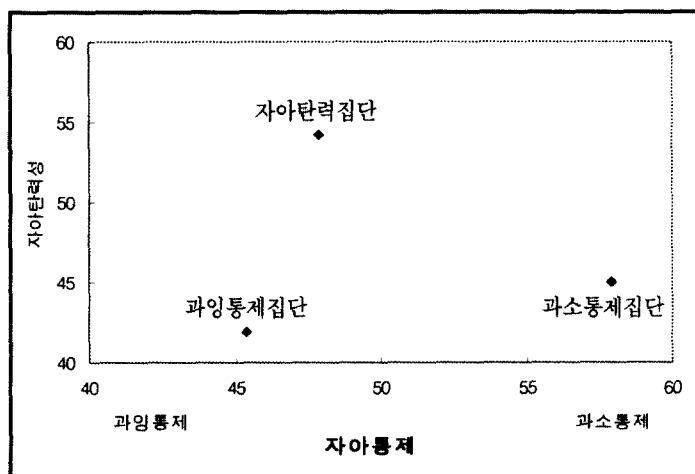


그림 3. 각 집단의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척도의 평균분포

성의 경우 자아탄력집단이 과소통제집단이나 과잉통제 집단보다 더 자아탄력적이었으며(각각 $p < .001$), 과소통제 집단과 과잉통제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p > .05$). 또한 자아통제의 경우 자아탄력집단과 과잉통제 집단은 과소통제집단보다 덜 과소통제적이었으며(각각 $p < .001$), 자아탄력집단과 과잉통제 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p > .05$).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아탄력집단은 자아탄력성 수준이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균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자아통제는 적절한 자아통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소통제집단은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과잉통제집단은 왼쪽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과소통제집단과 과

잉통제집단 모두 자아탄력성이 낮아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함을 의미하며, 과소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욕구를 지연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며, 과잉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충동을 억제하는 면이 강함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집단, 과소통제집단, 과잉통제집단의 성격특질 비교

자아탄력성-자아통제 개념을 통해 분류된 세 집단간에 성격특질 구성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NEO-PI-R의 5요인 원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T 점수로 변환하였다(표 4). 그리고 그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그림 4).

표 4. 각 집단에 따른 5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외향성 M (SD)	친화성 M (SD)	성실성 M (SD)	신경증 M (SD)	개방성 M (SD)
자아탄력집단 (N=125)	50.86 (9.63)	50.99 (9.81)	51.86 (9.26)	51.19 (10.20)	50.79 (9.88)
과소통제집단 (N=52)	52.12 (9.98)	48.22 (9.90)	47.15 (12.04)	46.69 (10.51)	50.38 (11.11)
과잉통제집단 (N=27)	41.96 (7.98)	48.84 (10.83)	46.88 (6.69)	48.86 (6.88)	45.63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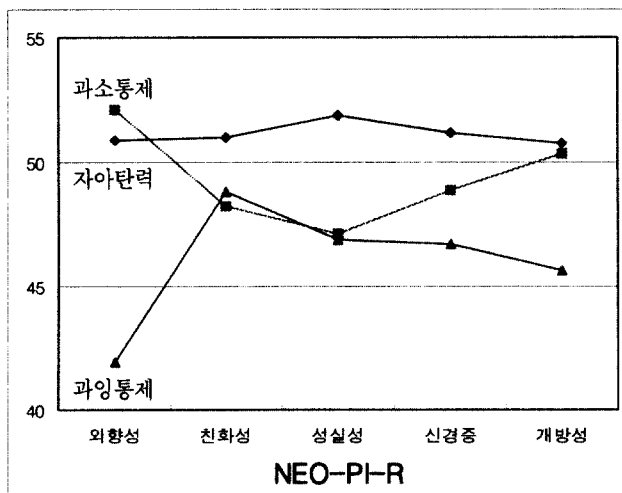


그림 4. 성격집단별 NEO-PI-R 프로파일

표 5. 다섯 성격특질에서의 유의한 집단간 차이

성격특질	유의한 차이(사후검증, Tukey HSD)
외향성	과소, 탄력 > 과잉
친화성	차이없음
성실성	탄력 > 과잉, 과소
신경증	차이없음
개방성	탄력 > 과잉

세 집단의 다섯 성격특질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친화성($F_{(2, 203)}=1.627, p=.199$)과 신경증($F_{(2, 203)}=2.755, p=.066$)을 제외한 외향성($F_{(2, 203)}=11.420, p<.001$), 성실성($F_{(2, 203)}=5.866, p<.01$), 개방성($F_{(2, 203)}=3.067, p<.05$)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다섯 성격특질 점수 분포(그룹 4)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아탄력집단은 5개 요인 모두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Tukey HSD) 결과(표 5) 과소통제집단이나 과잉통제집단보다 더 성실하며(각각 $p<.05$), 과잉통제집단보다는 더 외향적이고($p<.001$), 경험에 대해 더 개방적이었다($p<.05$). 과소통제집단은 외향성 수준이 과잉통제집단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하게 높았고($p<.001$), 자아탄력집단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성실성은 자아탄력집단보다 낮았으며($p<.05$), 과잉통제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잉통제집단은 과소통제집단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하게 내향적이었으며($p<.001$),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부족했다. 또한 자아탄력집단보다 성실성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집단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서적인 불안정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개념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다음, 집단들 간의 성격특질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CCQ 자

아탄력척도와 CCQ 자아통제척도의 평정치를 Q요인분석(inverse factor analysis)과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하여 집단을 분류해 본 결과 자아탄력집단, 과소통제집단, 과잉통제집단 등 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류된 세 집단 간에는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의 경우 자아탄력집단이 과소통제집단이나 과잉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소통제집단과 과잉통제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자아통제의 경우에는 과소통제집단이 자아탄력집단이나 과잉통제집단보다 더 과소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집단과 과잉통제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아탄력집단은 자아탄력 수준이 높아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융통성있게 잘 대처하고 있으며, 중간 정도의 적절한 자아통제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과소통제집단과 과잉통제집단은 자아탄력 수준이 낮아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하였으며, 과소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충동이나 욕구의 지연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잉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충동이나 욕구의 억제가 심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극도로 높거나 낮은 자아통제는 낮은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다는 Asendorpf와 van Aken(1999), Block과 Block(1980a), Hart 등(1997), Robins 등(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Asendorpf & van Aken, 1999; Robins et al., 1996)과 본 연구 간에는 몇 가지 차이점들이 관찰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과소통제집단의 자아통제 T 점수가 선행연구(Robins et al., 1996)에서의 T 점수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 과정에서 과소통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성의한 응답을 한 참가자들의 질문지를 제외시킴으로써 과소통제 점수가 이전의 연구보다 더 낮아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부분은 다소 충동적인 행동 패턴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아통제에서 자아탄력집단과 과잉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선행연구들(Asendorpf & van Aken, 1999; Robins et al., 1996)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집단이 과잉통제집단보다 덜 과잉통제적이지 않았다. 즉, 자아탄력집단의 자아통제 점수가 과잉통제 쪽으로 약간 치

우쳐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참고 자제하는 것을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전체적으로 볼 때 선행연구들에 비해 자아통제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큰 이탈을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T 점수 분포의 평균에 밀집하고 있는데, 이는 Robins 등(1996)의 연구에서 비행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남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상집단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생긴 차이로 추측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정서적인 문제와 행동적인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추후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이점들을 제외하면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 간에는 연령, 판단자, 검사문항수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O-PI-R을 통해 측정된 세 집단의 성격 특질들을 비교해 볼 때, 자아탄력집단은 다섯 성격특질 모두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분포하고 있었다. 즉, 외향적이었으며, 더 성실하였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반면에 과소통제집단은 외향적이었으며 자기개방을 잘했지만 성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잉통제집단은 내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성실성이 부족하고, 자기경험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격특질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패턴은 선행연구들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과소통제 집단에서 친화성과 성실성이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한가지 가능성은 질문지에 무성의하게 응답하였던 충동적이고 행동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 참가자들의 자료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친화성과 성실성의 성격특질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짐작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정상적인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행의 가능성이 높거나 없었던 남자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선행연구(Robins et al., 1996)보다 성실성과 친화성의 점수가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Asendorpf와 van Aken(1999)이 취학전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던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에 따른 각 성격집단들간의 성격특질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집단은 자아탄력집단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과잉통제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지만 그래도 적절한 수준의 자아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과 성격특질에서는 외향적이고 친화적이고 성실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집단은 과소통제집단으로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아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등에 취약함을 의미하며, 자신의 욕구나 충동 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과소통제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질에서는 외향적이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역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인 과잉통제집단은 과소통제집단과 마찬가지로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낮아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함을 의미하며, 자신의 충동이나 욕구를 지나치게 억제하려는 성향이 있고 성격특질에서는 상당히 내향적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실성이 부족하며, 자신에 대한 경험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상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의 정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해 보고 집단의 성격특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정상집단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라는 국한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행동적,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을 표본으로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및 성격특질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임상집단에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자아탄력집단, 과소통제집단, 과잉통제집단)에 대한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의 특징과 성격특질만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지능, 욕구지연, 충동성, 공격성, 억제, 정서표현, 행동표현, 및 인지적인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측정해 봄으로써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와 관련이 있는 임상적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안창규, 이경임 (1996). NEO 인성검사의 해석과 활용. 한국가이던스
- 안창규, 채준호 (1997). NEO-PI-R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443-473.
- 구형모, 황순택 (2001). CCQ 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 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345-358.
- Asendorpf, J. B., & van Aken, A. G. (1999).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personality prototypes in childhood: replicability, predictive power, and the trait-type iss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815-832.
- Block, J. (1978). *The Q-sort method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1)
- Block, J. H., & Block, J. (1980a).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Block, J. H. (1980b). *The California Child Q-Set*.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lock, J., Block, J. H., & Keyes, S. (1988). Longitudinally foretelling drug use in adolescence: Early childhood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precursors. *Child Development*, 59, 339-355.
- Block, J., Gjerde, P. F., & Block, J. H. (1991). Personality antecedents of depressive tendencies in 18-year-old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726-738.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Manual for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NEO-FFI)*.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Jr., & Widiger, T. A. (1994). Introduction: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 P. T. Costa & T. A. Widiger (Eds.),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pp.1-1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Furnham, A., & Thompson, J. (1991). Personality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585-593.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Hart, D., Hofmann, V.,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95-205.
- Huey, S. J., & Weisz, J. R. (1997).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404-415.
- John, O. P. (1990). The "Big-Five" factor taxonomy: Dimensions of Personality in the natural language and in questionnaires. In L. Pervin(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66-100). New York: Guilford.
- John, O. P., Caspi, A., Robins, R. W.,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4). The "Little Five": Exploring the nomological network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5, 160-178.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5). Comparison of EPI and Psychoticism scales with measures of the

-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87-597.
- McCrae, R. R. (1991).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ssessment in clinical setting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 399-414.
- McCrae, R. R., & John, O. P. (1992).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0, 175-215.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57-171.
- van Lieshout, C. F. M., Haselager, G. J. T., Riksen-Walraven, J. M., & van Aken, M. A. G. (1995, April). Personality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In D. Hart(Chair), *The contribu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o adolescent competence: Insights from longitudinal studies from three societi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diana.
- Wirt, R. D., Lachar, D., Klinedinst, J. K., & Seat, P. D. (1984). *Multidimensional description of child personality: A Manual for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York, K., & John, O. P. (1992). The four faces of Eve: A typological analysis of women's personality at mid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94-508.
- York, K., & John, O. P. (1994). *Three paths into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of the antecedents of personality types I adult wome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원고접수일 : 2001. 4. 11.
수정원고접수일 : 2001. 6. 13.
게재결정일 : 2001. 7. 23.

The Personality Traits of Ego Resilients

Hyoung-Mo Ku Soon-Taeg Hwang Ji-Hye Kim

Chungbuk University

Samsung Seoul Hospital.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personality traits among three groups(Ego Resilients, Ego Undercontrollers, Ego Overcontrollers) classified by Ego Resilience and Ego Control.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by CCQ Ego Resilience Scale(CCQ-ERS) and CCQ Ego Control Scale(CCQ-ECS), and measured for personality traits by the NEO-PI-R. Three groups were classified by Ego Resilience and Ego Control variables. The first group of children may be labeled Ego Resilients, characterized by high level of Ego Resilience and intermediate level of Ego Control. Their personality traits were extraverted, agreeable, conscientious, emotionally stable and open to experience. The second group of children may be described as Ego Undercontrollers, characterized by low level of Ego Resilience reflecting brittle in the situational stress and a strong tendency toward undercontrol. They were extraverted and open to experience, but emotionally unstable and low level of conscientiousness. Children of the third and final group may be named Ego Overcontrollers, characterized by low in Ego Resilience and tendency toward overcontrol. Ego Overcontrollers were highly introverted, emotionally unstable and also low level of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to experie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 Ego Resilience, Overcontrol, Undercontrol, Personality traits.